

초등학교 영어과의 성격과 음성 교육의 방향

박 주현 (충북대학교)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1995-7호)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성격과 목표를 간추릴 수 있다.

1. 초등학교 학생은 성장과정으로 보아 언어를 인식하고 습득하는데 가장 좋은 시기이다.
2. 초등학교 영어교과는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간단하며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과이다.
3. 초등학교 영어 교육의 내용 체계와 교육방법은 중·고등학교 영어 교육과는 달리한다.
4. 초등학교 영어 교육의 내용은 의사소통이 바탕이 되는 언어 기능 교육, 그 가운데서도 음성 언어 교육이 주가 된다.
5. 음성 언어 교육은 발음, 억양, 발화 등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6. 문자 언어 교육은 저학년에서는 문자 인식 수준으로 제한하고, 고학년에서는 문자 수준의 음성 이해를 돕는 보조 수단으로서 문어적 표현을 다룬다.
7. 초등학교 영어 교육의 방법은 초등학교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따라서 영어의 교수·학습 활동도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감각과 놀이를 중심으로 하고, 발견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8. 새로 도입된 영어 교과가 우리말의 습득에 도움이 되도록 유념한다.
9.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이 영어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며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데 있다.

한 마디로 말하여 초등학교 영어 교육은 일상생활의 간단한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 기초적인 영어의 습득에 목표를 두고 있어 자연스럽게 듣기, 말하기의 음성 언어 교육이 주가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친숙감과 자신감을 가져, 향후 중·고등학교 영어 교육과 연계성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에 서술한 초등학교

영어과의 성격과 목표는 상당한 논의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당장 음성 언어 교육의 좀더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이 문제가 되고, 더욱이 중·고등학교 영어 교육과의 연계성이 연구 과제로 남는다.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의 목표가 영어에 자신감과 친숙감을 심어주는데 있다고 하지만, 음성 교육을 등한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되지 않고, 흥미 위주로 이끌어 졌을 때 문제는 심각해진다. 자칫하면 초등학교 단계에서 나쁜 언어 습관을 형성하게 되어 향후 중·고등학교 영어 교육에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영어과를 담당하는 교사는 어느 정도의 음성학적 지식을 가져야 하며, 적어도 음성 교육 목표 또는 방향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초등학교 영어과의 음성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되고 검토될 과제이므로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다소 상식적 수준이겠지만 본 발표자가 평소에 생각한 대로 음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영어의 기본적인 억양패턴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여야 한다. 영어는 한국어와 다른 독특한 억양패턴을 가졌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초기 단계에서 영어 분절음 발음에 지나친 부담감을 주는 것은 자칫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기 쉽다. 특별히 음성학적 설명이 없이도 예를 들어 Good morning의 억양 형태가 한국어와 다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우리말의 억양패턴을 상기시키고 비교하는 발음 연습을 시키는 것도 우리말 습득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영어의 억양 구조에서 핵음조의 변화의 독특함을 습득시키고 그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시켜야 한다.

둘째, 영어의 단어강세와 리듬패턴을 익히도록 하여야 한다. 영어는 소위 강세박자리듬을 가지고 있어 강세음절은 강하고 완전모음으로 발음되는 반면에 무강세음절은 심하게 압축되고 애매모호하게 발음된다. 초기 단계에서 리듬 훈련은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 하나의 리듬군으로 구성된 문장으로 시작하여 단계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여기에서도 한국어와 대조하여 연습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끝으로, 분절음의 발음지도는 억양과 리듬의 운율패턴을 어느 정도 익힌 뒤에 서서히 시작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교사의 뚜렷한 목표의식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영어

분절음을 잘못 발음한다해도 지나치게 서둘러서 교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음교정은 천천히,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 발음기호를 사용한다거나 음성학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더욱이 영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것은 안된다. 영어의 어느 소리도 우리말로 그대로 대치시킬 수 없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제시한 내용을 요약하면, 우선 영어의 억양과 리듬의 운율패턴을 익히도록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분절음의 발음지도가 시도되어야 한다. 여기에 기본적인 방향은 학생들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모방하여 자연스럽게 외국어에 친숙하도록 하여야 한다. 언어마다 그 특유의 운율패턴이 있다. 상당히 외국어를 공부한 사람도 그 외국어의 운율패턴을 익히지 못하면 실제 외국사람과의 대화 소통이 어렵게 된다. 초등학교 학생은 언어에 민감한 나이이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영어의 억양과 리듬을 익히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 운율패턴을 익히는 방법은 우선 많이 듣게 한 뒤 다소 과장되게 큰 소리로 따라하는 학습방법이 효과적이다. 다소 분절음의 발음이 잘못된다 해도 영어의 운율패턴을 올바르게 구사할 수 있으면 앞으로의 소리말 구사에 큰 진전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문법이나 어휘습득에 큰 부담이 없는 시기에 영어의 운율패턴을 우선 익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분절음의 발음지도를 하여도 늦지 않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영어학습이 우리말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항상 우리말의 소리체계를 확인시키고, 대조시키며 영어의 독특한 소리체계를 익히도록 하여야 한다. 대상이 초등학교 학생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고 우리말과 영어에 도움이 되도록 학습방향을 세워야 한다.